

2023 설 가정예배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같이
기도		가족대표
성경봉독	시편 25:12~14 (구약819면)	인도자
설교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설교자



✚ 시편 25편 12절~14절 (구약819면)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13절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14절 여호와와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여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은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음력 설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 모두가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에게는 세 가지의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첫째, 최선의 선택을 하는 복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부터 시작해서 더 나아가 ‘어느 길로 가야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이렇게 순간마다 선택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에게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며 온 인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른 길,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입니다.

둘째, 영혼이 평안을 누리는 복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없으면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회든 불행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제 아무리 세상의 부귀, 명예, 성공을 성취해도 그 영혼이 만족을 얻지 못하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면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14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와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여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대하시고 약속을 이루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복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풍성한 복을 받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앞을 가로막은 홍해 바다도 갈라지고 여리고 성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한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과 친밀해 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밀하게 대하시며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2023년 새해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선하고 복된 길을 선택하며 영혼의 만족과 평안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되고 행복한 한 해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		가족대표
찬송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다같이
폐회	주기도문	다같이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MDX 목동제일교회